

# 한 글 맞 춤 법

## - 목차 -

### [제1장 총칙](#)

### [제2장 자모](#)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된소리](#)

#### [제2절 구개음화](#)

#### [제3절 <ㄷ> 소리 받침](#)

#### [제4절 모음](#)

#### [제5절 두음 법칙](#)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제5절 준말](#)

### 제5장 띄어쓰기

#### [제1절 조사](#)

#### [제2절 의존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 [제3절 보조 용언](#)

#### [제4절 고유명사 및 전문 용어](#)

#### [제5절 관형사](#)

#### [제6절 부사](#)

#### [쓰임새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 하는 것들](#)

#### [헛갈리는 띄어쓰기](#)

#### [기타](#)

### [제6장 그 밖의 것](#)

이 문서는 <열린책들>刊 ‘열린책들 편집 매뉴얼’, <신구문화사>刊 이희승,안병희 共著 ‘한글맞춤법강의’, <MBC 프로덕션>刊 배상복著 ‘문장기술’에 예 실린 한글맞춤법 부분을 발췌, 편집, 요약한 것입니다. Journal of Breast Cancer 투고자들의 논문작성에 참고가 되도록 전자논문투고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므로 무단으로 다른 매체에 게시 또는 배포 할 수 없습니다.

##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 제2장 자모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의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ㅁㅁ(쌍기역)	ㄷㄷ(쌍디귤)	ㅂㅂ(쌍비읍)	ㅅㅅ(쌍시옷)	ㅊㅊ(쌍치읓)
ㅐ(애)	ㅒ(얘)	ㅖ(예)	ㅘ(예)	ㅙ((와)
ㅚ(왜)	ㅜ이(외)	ㅞ(위)	ㅟ(웨)	ㅠ(위)
ㅢ(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까다	기쁘다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가끔	거꾸로	부썩
어찌	이따금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움짚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쌉둑(~쌉둑)	범석	갑자기	몹시

##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만이 (○) - 마지 (X)	활이다 (○) - 할치다 (X)
끝이 (○) - 꼬치 (X)	견히다 (○) - 거치다 (X)
굳이 (○) - 구지 (X)	닫히다 (○) - 다치다 (X)
같이 (○) - 가치 (X)	묻히다 (○) - 무치다 (X)
해돋이 (○) - 해도지 (X)	

##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덜저고리	돛자리	엇셈	웃어른	햇옷
무릎	사뭇	얼핏	자칫하면	몫(衆)
옛	첫	헛		

##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폐, 혜>의 <ㅈ>은 <ㅊ>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ㅈ>으로 적는다.

사례(謝禮) (○) - 사례 (X)	계집 (○) - 게집 (X)
폐품(廢品) (○) - 폐품 (X)	계시다 (○) - 게시다 (X)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	----------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니>로 적는다.

하늬바람 (○) - 하니바람 (X)	띄어쓰기 (○) - 띠어쓰기 (X)
---------------------	---------------------

##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나>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아>로 적는다.

여자(女子) (○) - 녀자 (X)                      유대(紐帶) (○) - 뉴대 (X)  
연세(年歲) (○) - 년세 (X)                      이토(尼土) (○) - 니토 (X)  
요소(尿素) (○) - 뇨소 (X)                      익명(匿名) (○) - 닉명 (X)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너’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쫙(兩-)                      년(年)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양심(良心) (○) - 량심 (X)                      용궁(龍宮) (○) - 룡궁 (X)  
역사(歷史) (○) - 력사 (X)                      유행(流行) (○) - 류행 (X)  
예의(禮儀) (○) - 례의 (X)                      이발(理髮) (○) - 리발 (X)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真理)  
증례(症例)                      사망률(死亡率)

다만, 모음이나 <ㄴ>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 - 나렬 (X)                      분열(分裂) (○) - 분렬 (X)  
치열(齒列) (○) - 치렬 (X)                      선열(先烈) (○) - 선렬 (X)  
비열(卑劣) (○) - 비렬 (X)                      진열(陳列) (○) - 진렬 (X)  
규율(規律) (○) - 규룰 (X)                      선율(旋律) (○) - 선룰 (X)  
비율(比率) (○) - 비룰 (X)                      전율(戰慄) (○) - 전룰 (X)  
실패율(失敗率) (○) - 실패룰 (X)                      백분율(百分率) (○) - 백분룰 (X)

**붙임 2** 외자의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昝)                      최린(崔麟)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협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누, 느>로 적는다

낙원(樂園) (○) - 락원 (X)                      뇌성(雷聲) (○) - 뢰성 (X)  
내일(來日) (○) - 래일 (X)                      누각(樓閣) (○) - 루각 (X)  
노인(老人) (○) - 로인 (X)                      능묘(陵墓) (○) - 룡묘 (X)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광한루(廣寒樓)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유유상종 (○) - 유류상종 (X)                      씹쓸하다 (○) - 씹슬하다 (X)

##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이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 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단, <아니요>는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로 <예/아니요>로 답해야 할 때 <예>에 상대되는 말로 쓰인다.

사용해 주십시오. (○) - 사용해 주십시오. (X)

아니요, 불가합니다. (○)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X)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ㄱ, ㄷ>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나아도/나아서	막아/막아도/막아서	얹아/얹아도/얹아서
돌아/돌아도/돌아서	보아/보아도/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개어도/개어서	겪어/겪어도/겪어서	되어/되어도/되어서
베어/베어도/베어서	쉬어/쉬어도/쉬어서	저어/저어도/저어서
주어/주어도/주어서	피어/피어도/피어서	회어/회어도/회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 읽어요      좋지 - 좋지요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때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불다:    부니	분	붙니다	부시다

**붙임**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ㄹ>이 준 대로 적는다.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2. 어간의 끝 <ㅅ>이 줄어들 때

긋다:    그어	그으니	그었다
낫다:    나아	나으니	나았다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때

그렇다:    그러니	그릴	그러면
하얏다:    하야니	하얏	하야면

4. 어간의 끝 <ㅌ, ㅍ>이 줄어들 때

뜨다:    떠	떴다
크다:    커	꼈다
담그다:    담가	담갔다

5.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때

신다:    실어	실으니	실었다
-----------	-----	-----

듣다: 들어                      들으니                      들었다

6. 어간의 끝 <ㅂ>이 <ㅌ>로 바뀔 때

쉽다: 쉬워                      쉬우니                      쉬웠다

무겁다: 무거워                      무거우니                      무거웠다

가깝다: 가까워                      가까우니                      가까웠다

단, <돕-, 곱->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돕다: 도와                      도와서                      도왔다

곱다: 고와                      고와서                      고왔다

7. <하다>의 활용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뀔 때

하다: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

8. 어간의 끝음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뀔 때

이르다: 이르러                      이르렀다

누르다: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 푸르러                      푸르렀다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때

가르다: 갈라                      갈랐다

구르다: 굴러                      굴렀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달맞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뉘음                      얼음                      웃음                      죽음

거칠 (○) - 거칠음 (X)                      설렘 (○) - 설레임 (X)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거름                      고름                      노름                      코끼리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마감, 쓰레기, 주검, 무덤, 마개, 마중, 올가미, 귀머거리, 까마귀

2) 부사로 바뀐 것: 너무, 도로, 자주, 바투, 차마, 비로소, 거뭇거뭇, 불긋불긋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나마, 부터, 조차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부사로 된 것

곳곳이                  날날이                  살살이                  집집이

2. 명사로 된 것

바둑이                  삼발이                  육손이                  절름발이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바가지                  이파리                  바깥                  지붕                  사타구니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값지다                  낫두리                  빗깁                  잎사귀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낱시                  텃개                  깊숙하다                  넓적하다                  굵직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1) 접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말끔하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알팍하다                  실컷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것

넙치                  울무                  납작하다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는다.

1. <-기-, -리-, -이-, -히-, -구-, -우-, -추-, -으키-, -이키-, -애->가 붙는 것

말기다                  읊기다                  울리다                  앉히다                  돌구다  
갖추다                  맞추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다만,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드리다                  고치다                  부치다                  거두다                  이루다

2. <-치-, -뜨리-, -트리->가 붙는 것

놓치다                  받치다                  부딪치다                  뺨치다                  엮치다  
부딪뜨리다/부딪트리다                  흘뜨리다/흘트리다

**붙임** <-엮-,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답다                  우습다                  미쁘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배불뚝이 (○) - 배불뚱기 (X)                  뺨죽이 (○) - 뺨주기 (X)  
홀쭉이 (○) - 홀쭉기 (X)                  오뚝이 (○) - 오뚜기 (X)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각두기	팽과리	누더기
두드러기	딱따구리	매미	부스러기	빼꾸기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끄덕이다 (○)	- 끄더기다 (X)	망설이다 (○)	- 망서리다 (X)
울먹이다 (○)	- 울머기다 (X)	지껄이다 (○)	- 지꺼리다 (X)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딱히	도저히	깨끗이	어렵듯이
----	----	-----	-----	------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일찍이	생긋이	일찍이
-----	-----	-----	-----	-----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술하다	착하다	털털하다
-----	-----	-----	------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시름없다	하염없다
------	------	------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꽃잎	격꽃이	끝장	흙내	칼날	밑천
빗나가다	끓주리다	엇나가다	짓이기다	겉늬다	엇든다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	-----

**붙임 2** 어원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머칠	오라비	부리나케	업신여기다
----	----	-----	------	-------

**붙임 3**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덧니	틀니	어금니	윗니
----	----	-----	----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달-달-이 → 다달이	딸-님 → 따님	말-소 → 마소
바늘-질 → 바느질	불-나비 → 부나비	불-삽 → 부삽
술-나무 → 소나무	쌀-전 → 싸전	열-단이 → 여단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설-부르다 → 선부르다      사흘-날 → 사흔날      이틀-날 → 이튼날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콧밥, 나룻배, 나룻가지, 냇가, 맺돌, 모깃불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뒗머리, 잇몸, 냇물, 갯목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베갯잇, 나룻잎, 뒗일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콧병, 아랫방, 자릿세, 텃줄, 찻잔, 찻기, 텃세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제삿날, 훗날, 뒗마루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횃수(回數)      찻간(車間)      뒗간(退間)

**붙임**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여섯 개 단어만은 위와 같이 적는다.

**제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ㅁ>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1. <ㅁ> 소리가 덧나는 것

좁쌀(조ㅁ쌀)      뽕씨(벼ㅁ씨)      입때(이ㅁ때)

2. <ㅎ> 소리가 덧나는 것

수컷(수ㅎ컷)      암탉(암ㅎ닭)      안팎(안ㅎ밖)      살코기(살ㅎ고기)

## 제5절 준말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어제저녁 → 엇저녁      가지고 → 갖고      디디고 → 딛고

**제33항**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것은 → 그건      그것이 → 그제      그것으로 → 그걸로      나는 → 난  
나를 → 날      나에게 → 내게      그 애는 → 개는      무엇을 → 뭘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나왔다 → 났다

**붙임 1** <ㅐ, ㅐ>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개어 → 개      개었다 → 갸다      내어 → 내      내었다 → 내었다

**붙임 2** <하어>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하어 → 해      하였다 → 했다      더하어 → 더해      더하였다 → 더했다

**제 35 항** 모음 <ㅓ, ㅕ>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ㅓ/ㅕ>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두어 → 뒤      두었다 → 뒸다      주어 → 줬      주었다 → 줬다

**붙임 1** <농아>가 <ㅑ>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붙임 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됐>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괴어 → 깨      괴었다 → 깨다      되어 → 돼      되었다 → 됐다

**제36항** <ㄷ> 뒤에 <-어>가 와서 <ㄷ>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가지어 → 가져      가지었다 → 가졌다      막히어 → 막혀      막히었다 → 막혔다

**제37항** <ㄷ, ㅌ, ㄱ, ㅌ,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대, 깨, 니, 기, ㄴ>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누이다 → 뉘다      보이다 → 뵈다      뜨이다 → 띄다      쓰이다 → 켜다

**제38항** <ㄷ, ㄱ, ㅌ, ㅡ>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보이어 → 뵈어/보여      쓰이어 → 켜어/쓰여      뜨이어 → 띄어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자>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적지 않은 → 적잖은      그렇지 않아도 → 그렇잖아도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ㄷ>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간편하게 → 간편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다정하다 → 다정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않고/않지/않든지      어떻다/어떻고/어떻지/어떻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 못지 않다

**붙임 3**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 제5장 띄어쓰기

### 제1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1과	3학년	6층
1동 101호	100원	20개	30미터
제1어학실습실	제1대대	2009년 5월 8일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0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교수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수술 및 약물요법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 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원칙:** 꺼져 간다, 올 듯하다, 도와 드린다, 깨뜨려 버렸다, 할 만하다, 아는 척한다

**허용:** 꺼져간다, 올듯하다, 도와드린다, 깨뜨려버렸다, 할만하다,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덤벼 보이라	읽어도 보고...	올 듯도 하다
떠내려가 버렸다	잘난 체를 한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유명한 박사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1. <그 성씨 자체> 또는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가>는 앞말에 붙여 쓴다.

김가/이가/박가

2. 우리말 성에 붙는 <씨>의 경우

1) <그 성씨 자체>를 더하는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일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

김씨/이씨/박씨 부인/최씨 문중/여유당 정씨/그의 성은 오씨이다.

2)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이름, 성명 아래에 쓰여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의존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에서 띄어 쓴다.

김 씨!(부를 경우)/길동 씨/회빈 장 씨/李 某 씨

3) <군, 양, 형, 웅>은 띄어 쓴다.

김 양/이 군/박 형/함석헌 웅

### 3. <님>의 경우

1)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앞말에서 띄어 쓴다.

홍길동 님/길동 님

2)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올 때에는 앞말에 붙여 쓴다.

신부님/총장님/원장님/달님/별님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원칙:**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허용:**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외래어에 붙은 <학교>는 띄어 쓴다. (예) 케임브리지 대학교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허용:**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 제5절 관형사

1.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로 뒤따르는 말과 항상 띄어 쓴다. 조사도 붙지 않고 어미 활용도 없다.

1) 性狀 관형사

새 책/순 우리말/옛 절/현 옷

2) 數 관형사

한/두/세(석/서)/네(넉/너)/다섯(닷)/여섯(엿)

한두/두세/서너/두서너

여러/모든/온/온갖/갖은//반(半)/전(全)


3) 指示 관형사

이/그/저//요/고/조//이런/그런/저런/이런저런//다른/무슨/어느/웬


귀(貴) 회사/동(同) 대학/본(本) 연구소/전(前) 장관/현(現) 시장

2. 관형사 <이/그/저/아무> 및 대명사 <우리>는 다음에 한하여 뒤의 말과 붙여 쓴다.

이것/그것/저것/아무것

 관형사 <아무>는 <아무것>과 <아무짝>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이곳/그곳/저곳, 이날/그날, 이놈/그놈/저놈

 <놈>은 명사로서 <손자 놈/둘째 놈/자식 놈/망할 놈/고양 놈> 등처럼 띄어 써야

하나, <네놈/도둑놈/왜놈/아들놈> 따위처럼 붙여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어사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그때/저때, 이번/저번/요전번, 이이/그이/저이, 이즈음/그즈음/요즈음,  
이쪽/그쪽/저쪽, 이편/그편/저편, 그간/그새(=그사이), 우리글/우리말/우리나라  
☞ 관형사 <우리>는 <우리글>, <우리말>, <우리나라> 외에는 모두 띄어 쓴다

3. 다음의 말에서 <새>는 뒷말과 굳어 버린 것으로 보고 붙여 쓴다.

새것/새달/새택/새봄/새사람/새살림/새색시/새서방/새순/새신랑/새쌍//새아씨/새아기/  
새집/새잎/새집/새해

4. 다음의 말에서 <첫>은 뒷말과 붙여 쓴다.

첫걸음/첫나들이/첫날/첫눈/첫돌/첫딸/첫마디/첫사랑/첫숨씨/첫술/첫아들/첫인상

5. <한>의 띄어쓰기

1) 다음 경우의 <한>은 접두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① 큰: 한걱정/한고비/한길/한밀천/한시름
- ② 정확한, 한창인: 한가운데/한겨울/한밤중/한낮/한복판/한잠/한중간
- ③ 같은: 한군데/한동네/한마을/한패/한통속/한집안(☞ 한 국가)
- ④ 바깥: 한데/한땀
- ⑤ 끼니때 밖: 한동자/한음식/한저녁/한점심
- ⑥ 기타 항상 붙여 써야 하는 경우: 한구석/한때/한숨/한풀/한쪽 팔(☞ 마늘 한 쪽)

2) 항상 띄어 써야 하는 경우

하루 한 끼 식사(☞ 세끼 밥), 한 덩어리, 한 식경 후, 한 줌의 재, 한 치 앞

6. <한번>의 띄어쓰기

막연한 <일차/일단>의 뜻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두 번>에 대응되는 <한 번>은 띄어 쓴다.

한번은(=언젠가) 이런 실수도 했다.

한 번은 옳다고 하고, 한 번은 틀리다고 했다.

다음의 예는 반드시 띄어 쓴다.

한 번도/한 번에/꼭 한 번/다시 한 번/단 한 번/또 한 번/한 번 더/두 번 다시

7. <한자/한잔하다>의 띄어쓰기

1) 간단하게 마실 경우에, <한잔>은 붙여 쓴다(딱 한 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커피 한잔 할까?/술 한잔 더 어때?

2) 잔에 담긴 음료 따위의 분량을 셀 경우에는 띄어 쓴다.

여기 한 잔 더 주세요!/커피 한 잔 시켜라!

8. <맨>의 띄어쓰기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의 뜻을 가진 <맨>은 관형사이므로 띄어 쓰고, 그 밖의 <맨>은 접두사와 부사로 접두사 <맨>은 붙여 쓰고 부사 <맨>은 띄어쓰기한다.

1) 관형사

맨 가장자리/맨 구석 자리/맨 뒤/맨 꼭대기/맨 끝/맨 나중/맨 먼저/맨 밑  
맨 아래/맨 앞/맨 안쪽/맨 오른쪽/맨 위/맨 처음

2) 접두사(다른 것이 없는...)

맨눈/맨다리/맨땅/맨몸/맨발/맨손/맨주먹/맨입

3) 부사(다른 것은 섞이지 않고 온통...)

이 동네는 맨 식당뿐이다.

그는 맨 먼지투성이로 밖에서 들어왔다.

9. <各, 本, 全>이 독립성이 없는 한 음절의 말과 어울려 굳어 버렸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각국/각급/각자/각처(各處)/각층

본관/본교/본국/본뜻/본심/본집/본처

전교/전군(全軍)/전신(전 국민, 전 생애, 전 인류, 전 재산)

10. 품사상 관형사지만, 뒤의 말과 어울려 하나의 명사를 이루어 접두사가 된 말은 붙여 쓴다.

못매/못사람/못발길 ↔ 못 사내/못 새(들의 지저귀)

현것/현데/현신작 ↔ 현 가방/현 구두/현 돈/현 신문지/현 옷가지/현 집

온몸/온밤/온종일 ↔ 온 국민/온 식구/온 하루/온 집안

11. 數를 나타내는 말은 ‘萬’ 단위로 띄어 쓰므로 <몇>은 다음 말에서는 붙여 쓴다.

몇몇/몇십/몇백/몇천/몇만/몇십만/몇백만/몇천만/몇억/몇조

12. <수>는 관형사지만 다음 말들에서는 붙인다.

수개월/수년/수차례/수일/수년치/수억대

<수일>은 <여러 날>로 순화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다음 말에서는 붙여 쓴다.

수 세기/십수 년/수백 개

## 제6절 부사

1. 두 개의 부사가 겹치는 형태 가운데 다음 말들은 붙여 쓴다.

곧바로/곧잘/또다시/똑같이/더더군다나/더더욱/더욱더/더한층(한층 더, 좀 더)

2. 다음 말들은 부사이므로 모두 붙여 쓴다.

그런고로, 그런대로, 다름없이, 제멋대로, 하다못해, 왜냐하면, 이룰테면, 하루걸러,  
하루빨리, 한시바빠(그런 데다, 다름 아니라, 보다 못해, 아니나 다를까)

## 쓰임새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 하는 것들

1. 지

1)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쓴다.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집을 떠난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2) 의문,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지는 어미로 붙여 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 2. 데

- 1) ‘장소·경우·일·것’의 의미를 가질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그가 사는 **데**는 여기서 한참 멀다.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그 사람은 오직 졸업장을 따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 **데**나 쓴다.

- 2) 뒷말을 연결해 주는 연결형 어미일 때는 붙여 쓴다.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그 사람이 정직하기는 한**데** 이번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

- 3) 종결형 어미일 때는 붙여 쓴다.

오른 날씨가 정말 추운**데**.

어머님께서 정말 미인이신**데**.

## 3. 바

- 1)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등을 나타내는 말과 방법·방도, 주장, 형편을 뜻하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찢찢맸다

어차피 매를 맞을 **바**에는 먼저 맞겠다.

이렇게 억지 부릴 **바**에는 그만두자.

- 2)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 그 사실이 있게 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할 때는 연결 어미로 붙여 쓴다.

서류를 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진바 우리는 이제 그에 따를 뿐이다.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 4. 대로

- 1) 어떤 모양이나 상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뜻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봐라.

예상했던 **대로** 시험 문제가 까다로웠다.

그 둘의 애정은 식을 **대로** 식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와라.

- 2) 명사 뒤에 붙어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와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일 때는 붙여 쓴다.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뒤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상관 말고 살자.

#### 5. 밖

1)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길이 되는 쪽,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일 등을 나타낼 때는 명사로 띄어 쓴다.

이 선 **밖**으로 물러나 기다리시오.

어머니는 동구 **밖**에까지 따라 나오며 우리를 배웅하셨다.

그녀는 기대 **밖**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예상 **밖**으로 일이 복잡해졌다.

2)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낼 때는 조사로 붙여 쓴다. 이 경우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그는 공부**밖**에 모른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가지고 있는 돈이 천 원**밖**에 없었다.

#### 6. 뿐

1)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한거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네.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싫다 좋다 말이 없다.

모두들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드는 이가 없었다.

2)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이름이 나지 않았다 **뿐**이지 참 실력 있는 사람이다.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

3) 명사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로 붙여 쓴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다.

그는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다.

#### 7. 만

1) 주로 ‘만에’ 또는 ‘만이다’ 꼴로 쓰여 시간·‘~동안’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도착한지 두 시간 **만에** 떠났다.

그때 이후 삼 년 **만**이다.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2) 앞 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듣고 보니 좋아할 **만**은 한 이야기다.

그냥 모르는 척 살 **만**도 한데 말이야.

그가 그러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하다.

3) 한정을 나타내거나 강조하는 뜻일 때는 보조사로 붙여 쓴다.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머리가 멍했다.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 당첨돼도 바랄 것이 없다.

#### 8. 만큼

1) 앞의 내용에 상응하는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게 마련이다.

사용한 **만큼** 돈을 내면 된다.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2)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어른이 심하게 다그친 **만큼** 그의 행동도 달라져 있었다.

까다롭게 검사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주로 명사 뒤에 붙어 앞 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낼 때는 보조사로 붙여 쓴다.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공부**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부모님께**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 9. 간(間)

1)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고속철을 타면 서울과 부산 **간**에 2시간 40분이 걸린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2)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일 때도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3)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나타낼 때는 접미사로 붙여 쓴다.

이틀간, 한 달간, 30일간, 2년간

#### 10. 망정

1)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기가 크게 다칠 뻔했다.

2) 주로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는 연결어미로 붙여 쓴다.

시골에서 살**망정** 세상 물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우리 학교는 규모가 작을**망정** 역사는 오래됐다.

시험에 떨어질**망정** 남의 것을 빼끼지는 않겠다.

## 헛갈리는 띄어쓰기

1. ‘안’은 ‘안 간다’·‘안 먹는다’·‘안 된다’처럼 띄어 쓰지만, 일·현상이 좋게 이뤄지지 않거나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함을 뜻하는 ‘안되다’(‘잘되다’의 반대 개념)는 붙여 쓴다.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된다**.(일반적인 경우)

장사가 너무 **안된다**.(‘잘되다’의 반대)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잘되다’의 반대)

2. ‘못’은 ‘못 간다’·‘못 말린다’ 등과 같이 띄어 쓰지만, ‘못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담배는 피우지만 술은 **못한다**.

노래를 **못한다**.

말을 잊지 **못했다**.

3. ‘못’이 ‘되다’와 결합하는 경우 성질·품행이 좋지 않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나타낼 때는 ‘못되다’가 한 단어이다.

전철역까지의 거리가 1km도 채 **못 된다**.(일반적인 경우)

**못된** 심보다. **못된** 짓만 골라 한다.(성질·품행)

**못된** 게 내 탓이냐?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누가 알겠어?(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

4. ‘동안’은 ‘3시간 동안’·‘사흘 동안’ 등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그동안’·‘오랫동안’·‘한동안’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 무척 궁금했다.

그 여학생을 **오랫동안** 먼발치에서 혼자 좋아해 왔다.

무거운 짐목이 **한동안** 계속됐다.

5. ‘만’이 시간이나 ‘동안’을 나타낼 때는 ‘하루 만에’처럼 띄어 쓰지만 ‘오래간만에’와 준말인 ‘오랜만에’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정말 **오래간만에** 비가 내렸다.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한잔했다.

6. ‘~커녕’·‘~는(은)커녕’은 띄어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모두 붙여 쓴다.

**밥커녕** 죽도 못 먹는다.

그 녀석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는 체도 않더라.

7. ‘~ㄴ즉’은 ‘~ㄴ 즉’과 같이 띄어 쓰기 쉬우나 보조사 또는 연결어미로 붙여 쓴다.

이야기**진즉** 옳다.(보조사)

말씀**인즉** 지당하지만 그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연결어미)

8. ‘내 것’·‘네 것’·‘언니 것’ 등 ‘것’은 일반적으로 띄어 쓰나, ‘이것’·‘저것’·‘이것저것’·‘요것’·‘그것’·‘고것’·‘아무것’ 등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이것저것** 다 해 봤지만 별수 없었다.

**그것**은 거기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이리 오게.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아무것**이나 닦치는 대로 일했다.

9. ‘것을’의 준말인 ‘걸’은 띄어 쓰지만, 추측이나 미련을 나타내는 ‘~걸’은 붙여 쓴다.

아직 멀쩡한 걸 왜 버리느냐?(‘것을’의 준말)

- 그 친구는 내일 미국으로 떠날**걸**.(추측)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걸**.(미련)
10. ‘것이’의 준말인 ‘게’는 띄어 쓰지만, 약속을 나타내는 ‘~르게’는 붙여 쓴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집이다.(‘것이’의 준말)  
 내일 **갈게**.(약속)
11. ‘중’은 ‘돌 중’·‘이 중’ 등과 같이 띄어 쓰지만, ‘그달’·‘이달’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그들은 3월 초에 처음 만나서 **그달** 말에 약혼했다.  
**이달** 들어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다.
12. ‘이 같은’은 두 단어로 띄어 쓰고, ‘이같이’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그러나 ‘똑같다’는 단어에서 나온 ‘똑같은’과 ‘똑같이’는 붙여 쓴다.  
**이 같은** 일리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선생님이 **이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매일 **똑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똑같이** 졸업반이다.
13. ‘가지 않다’ ‘먹지 않다’ 등 ‘~지 않다’는 보통 두 단어로 띄어 쓰지만, ‘마지않다’ ‘머지않다’ ‘못지않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그분은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분이다.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멀지 않아’는 두 단어로 띄어 쓴다)  
 그는 화가 **못지않게** 그림을 잘 그린다.
14. ‘보잘것없다’·‘하잘것없다’·‘온데간데없다’·‘올데갈데없다’·‘얼토당토않다’는 전체가 한 단어로 모두 붙여 쓴다.  
**보잘것없는** 수입이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하잘것없는** 일로 형제끼리 다투어서야 되겠는가?  
 선거 때 장밋빛 공약은 **온데간데없다**.  
 현대 핵가족 생활에서 노인은 **올데갈데없다**.  
 소문은 **얼토당토않은** 데서부터 시작됐다.
15. ‘~르텐데’ ‘~르테야’는 한 단어로 생각하고 붙여 쓰기 쉬우나 ‘텐데’는 ‘터인데’, ‘테야’는 ‘터이야’의 준말이므로 띄어 쓴다.  
 선생님이 아시면 크게 **화내실 텐데**.(←화내실 터인데)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할 테야**.(←할 터이야)
16. 다음 단어들은 의미가 전성된 복합어(한 단어)로 붙여 쓴다.  
 새것, 새집, 새살림, 새잎, 새색시, 새택  
 큰돈, 큰손, 큰길, 큰절, 큰비, 큰물, 큰불, 큰집, 큰아버지, 큰아들  
 작은방, 작은창자, 작은집, 작은형, 작은아들  
 지난날,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지난봄, 지난여름, 지난겨울, 올여름, 올겨울
17. ‘띄어쓰기’는 명사로 한 단어이지만, ‘띄어쓰다’란 동사는 따로 없기 때문에 ‘띄어쓰다’로 쓴다.

## 기타

### 1. 외래어와 붙는 우리말의 띄어쓰기

#### 1) 띄어 쓰는 경우:

그리스 신화, 뉴욕 시, 라틴 문화, 사하라 사막, 알프스 산맥, 버스 문, 택시 정류장

#### 2) 한데 어울려 한 낱말로 된 것이나 이에 준하는 말들은 붙여 쓴다.

가톨릭교, 고딕양식, 노벨상, 로마자, 프랑크푸르트학과, 프랑스산, 금메달, 엑스선

### 2. 생물 및 동식물 명칭의 띄어쓰기

#### 1) 우리말로 된 동식물의 품종명은 붙여 쓰고, 외래어는 이에 준한다.

팽이갈매기      단풍나무      삼지구엽초      도베르만피서

#### 2) 동식물을 포함한 생물의 분류학상 명칭은 붙여 쓴다.

원생생물      척추동물      종자식물      양치식물

단, <종, 속, 과, 목, 강, 문, 계>에 속하지 않으면 띄어 쓴다.

수생 식물      식용 식물      온대 식물      야생 동물      고등 동물

### 3. 한 음절의 말과 어울려 굳어 버린 전문 용어는 붙여 쓴다.

원운동      감마선      열역학, 핵반응(열 관리, 핵 실험)

### 4. 화학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1) 하나의 화합물인 화학 용어는 붙여 쓴다.

안식향산      이산화탄소      수산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 2) 그러나 하나의 화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띄어 쓴다.

아세트산 비닐 수지      아세트산 이온

### 5. 관직명, 직위명의 띄어쓰기

#### 1) 관청명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

국립 국어원/국립국어원      대한 출판문화 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 2) 소속과 직위명이 연이어 나타날 경우에는 소속과 직위명은 띄어 쓴다.

국립 국어원장      대한 출판문화 협회 사무총장

### 6. <특별시, 광역시, 도, 북도, 남도, 시, 읍, 면, 리, 군, 구, 동>의 단어들이 붙는 고유 명사는 붙여 쓴다. 단, 외래어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서울특별시장      통의동사무소

동 이름 앞에 <제1, 제2> 등이 붙을 때는 띄어 쓴다. 예) 성북 1동

<남북도>는 띄어 쓴다. 예) 충청 남북도

### 7. 지명이나 그에 준하는 고유 명사를 나타내는 경우, 다음의 단어들은 외래어에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쓰고, 한자어나 고유어에 붙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다만, 외래어라도 한국 한자 음으로 읽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북경시 - 베이징 시      한강 - 라인 강      인도양 - 카리브 해      한국말 - 프랑스 말

### 8. 인명, 지명 등을 로마자 대문자 이니셜로 생략해 쓸 경우, 뒤에 따르는 단어는 띄어 쓴다.

P 교수, K 형, C 도, H 시

### 9. 빛깔 이름에서 <색/빛>의 띄어쓰기는 우리말로 된 순색의 빛깔 이름은 주로 붙여 쓰고,

외래어나 순색이 아닌 것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면 붙이고,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띄어 쓴다.

1) 모두 붙여 쓰는 경우: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남색, 주황색, 얼굴색, 하늘색

색 → 빛: 보라색 → 보랏빛, 장미색 → 장밋빛, 우유색 → 우윳빛

2) <색/빛> 모두 띄어 쓰는 경우: 레몬 색(빛), 핑크 색(빛), 오렌지 색(빛)

3) <색/빛>에 따라 다른 경우: 치자색/치자 빛, 바다색/바다 빛, 쪽 색/쪽빛, 살구 색/살구 빛

10. <없다/있다>가 붙는 단어의 띄어쓰기

1) 붙여 쓰는 경우: 끊임없다, 빠짐없다, 끝없다, 틀림없다, 어김없다, 쓸모없다, 상관없다

2) 띄어 쓰는 경우: 남김 없다, 이유 없다, 의미 없다, 흥미 없다, 죄 없다

3) 앞에 꾸미는 말이 올 때는 붙여 쓰지 않는다. 예) 아무 쓸데 없는 일, 별 꾸밈 없이

11. <없다> 앞에 용언을 수반한 명사가 오거나,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될 때는 <없다>를 붙여 쓰지 아니한다. 예) 받는 것 없이, 더할 나위 없이, 눈 코 뜰 새 없이, 바람 없는 날

12. <명사+좋다>의 띄어쓰기는 <사이좋다> 외에는 거의 띄어 쓴다.

13. <깊다>의 띄어쓰기는 <뜻깊다> 외에는 거의 띄어 쓴다.

14. <나다/내다, 떨다/부리다/피우다, 들다/들이다, 맞다, 먹다, 삼다, 잡다, 지다, 짓다> 등이 붙는 말들은 다른 명사와 어울려 합성어를 이루지 않는 한 띄어 써야 한다.

1) 나다/내다: 결판나다, 기억나다, 별나다 ↔ 고장 나다, 결론 나다, 소리 내다

2) 들다/들이다: 길들다, 공들이다, 힘들다, 잠들다 ↔ 감기 들다, 단풍 들다, 정성 들이다

3) 떨다/부리다/피우다: 궁상떨다, 극성부리다, 꽃피우다 ↔ 고집 피우다, 호들갑 떨다

4) 맞다: 도둑맞다, 땀맞다, 번덕맞다, 익살맞다 ↔ 매 맞다, 비 맞다, 땀 맞다, 손님 맞다

5) 먹다: 귀먹다/마음먹다/겉먹다/욕먹다 (밥 먹다)

6) 잡다: 주름잡다/손잡다/줄잡다 (균형 잡다/자리 잡다/트집 잡다)

15. 형용사의 어미 <-워/-아/-어>에 보조 동사 <하다>가 붙어서 동사로 바꾸는 구실을 할 경우 <하다>를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워하다      거북스러워하다      고마워하다      괴로워하다

16. <-기>로 끝나는 말은 국어사전의 표제어 등재 여부에 따라 띄어쓰기한다.

예) 높이뛰기, 줄넘기, 삼단뛰기, 듣고부르기, 술래잡기, 씨뿌리기, 거름주기, 돼지치기

노래 부르기, 돌 쌓기, 외워 부르기, 채소 가꾸기, 흙 쌓기

17. 첩어와 준첩어, 의성어와 의태어 등은 붙여 쓴다.

차레차레      하루하루      그럭저럭      여기저기      들락날락

18. <-디>로 연결되는 단어도 첩어로 보고 붙여 쓴다.

가깝디가까운      높디높은      차디찬      크디큰

19. 용언의 부사형이 첩어 형태를 취하는 것과 <-나(고)>를 취하는 말은 붙여 쓰지 아니한다.

급게 급게      훌러 훌러      높고 높은      싸고 싸      하나 마나

20. 접사는 붙여 쓴다.

접두사: 강추위, 내놓다, 늦더위, 매한가지, 가건물, 내출혈, 대규모, 매시간, 항히스타민제

접미사: 슬기롭다, 주목받다, 마음껏, 아시다시피, 미술가, 음악인, 소식통, 최면술

21. 명사의 아래, 어원적 어근 혹은 부사 아래에 <하다>가 붙어 한 단어가 될 때, <하다>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물렁물렁하다      반듯하다      집행하다      착하다      출렁출렁하다

22.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에 <-시키다/-되다>가 붙어 한 낱말이 될 때 <-시키다/-되다>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또한 명사 아래에 붙어 피동을 나타내는 <-받다/-당하다> 역시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띄어 쓴다.

결정되다/결정시키다, 당선되다/당선시키다, 결정을 하다/일을 시키다/오해를 받다  
ㄹ (<-받다>는 국어사전의 등재 여부에 따라 띄어 쓰거나 붙여 쓸 수 있으며,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 1) 붙여 쓰는 경우: 교육받다, 보상받다, 인정받다, 허가받다, 본받다, 대출받다
- 2) 띄어 쓰는 경우: 돈 받다, 상 받다
- 3) 뜻이 달라지는 경우

전화받다(걸려온 전화를 받다) - 전화 받다(구체적인 사물로서 전화기를 받다)

23. 명사 아래에 접미사 <-화>가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그렇게 됨을 나타내는 말 아래에 다시 <하다>가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다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붙여 쓰지 아니한다.

일반화하다      일반화시키다      일반화 되다      일반화를 시키다

ㄹ 그러나 그 앞에 꾸미는 말이 오면 붙여 쓰지 아니한다.

고속 질주 하다      사고 조치 하다      일반 이론화 하다

24. <속, 안, 밖, 앞, 뒤, 때, 전, 후, 밑> 등이 붙는 단어는 국어사전의 표제어 등재 여부에 따라 띄어 쓴다.

- 1) 붙여 쓰는 경우: 산속, 품속, 몸속, 나밖에, 문밖, 창밖, 이후, 이외, 땅속, 물속, 턱밑
- 2) 띄어 쓰는 경우: 숲 속, 품 안, 몸 안, 이 밖(에), 문 앞, 집 앞, 그 후, 그 외, 나무 밑
- 3)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

머릿속(추상적 공간)/머리 속(해부학적인 머리의 속)

집안(가족, 가까운 일가)/집 안 (공간적인 집의 내부)

25. <다음>과 <지난>은 아래의 경우 외에는 띄어 쓴다.

다음가다/다음번/이다음/그다음/요다음

ㄹ 다음날(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어떤 날) - 다음 날, 다음 주(바로 다음 날/주)

지난번/지난밤/지난날/지난주/지난달/지난봄/지난해

ㄹ <지난>은 <지나다>의 활용형이나 위의 용례에 한하여 붙여 쓴다.

##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깨끗이	나뭇이	느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적이
헛되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쉴쉴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섬섬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만난(萬難), 안녕(安寧), 분노(忿怒), 토론(討論), 목재(木材), 십일(十日), 팔월(八月), 오륙십(五六十)

**속음으로 나는 것:** 수락(受諾), 허락(許諾), 곤란(困難), 논란(論難), 의논(議論), 유월(六月), 시월(十月), 초파일(初八日), 모과(木瓜),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제 53 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 (으)르거나(○) - (으)르꺼나 (X)	- (으)르지니라(○) - (으)르찌니라 (X)
- (으)르결(○) - (으)르꼴 (X)	- (으)르지라도(○) - (으)르찌라도 (X)
- (으)르게(○) - (으)르께 (X)	- (으)르지어다(○) - (으)찌어다 (X)
- (으)르세(○) - (으)르쎄 (X)	- (으)르지언정(○) - (으)르찌언정 (X)
- (으)르세라(○) - (으)르쎄라 (X)	- (으)르진대(○) - (으)르쎌대 (X)
- (으)르수룩(○) - (으)르쭈룩 (X)	- (으)르진저(○) - (으)르쎌저 (X)
- (으)르시(○) - (으)르씨 (X)	- 올시다(○) - 올씨다 (X)
- (으)르지(○) - (으)르찌 (X)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 (으)르까?	- (으)르꼬?	- (수)비니까?
- (으)리까?	- (으)르쏘냐?	

**제 54 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

빛깔 (○) - 빛갈 (X)	팔꿈치(○) - 팔굼치 (X)	뒤꿈치(○) - 뒤굼치 (X)
일꾼 (○) - 일군 (X)	객쩍다(○) - 객적다 (X)	검연쩍다(○) - 검연적다 (X)
귀때기 (○) - 꺾대기 (X)	볼때기(○) - 볼대기 (X)	코빼기 (○) - 콧배기 (X)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

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맞추다 (○) - 맞추다 (X)

다리를 뺀친다, 멀리 뺀친다: 뺀치다 (○) - 빼치다 (X)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예)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 -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X)

깊던 물이 알아졌다 (○) - 깊든 물이 알아졌다 (X)

그렇게 좋던가? (○) - 그렇게 좋든가? (X)

얼마나 되던지 몰라? (○) - 얼마나 되든지 몰라? (X)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예)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 -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X)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 -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X)